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 실효성 있을까

SOC는 제외…‘차등 지원’ 효과 의문

“균특회계 등 배분 낙후도 반영
법인세 차등 감면 획기적 조치”

혁신도시 이전 유인책도 미흡

■ 2단계 균형발전 정부 세부계획	
부 문	14개 과제
기업대책	지방기업에 법인세 차등감면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확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주거지정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대기업의 지방투자지 출조제 예외인정 지방이전·투자기업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사람대책	지방기업 종업원에 고품질주택 공급 지방 초·중등교육 수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지역선도시내 교육·문화·의료·복지인프라 확충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 자방기업법인세 차등감면제도

구분	현 행	개 선
중 소 기 업	• 창업: 4년간 50% 감면 • 이전: 5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운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수도권 10~20%, 지방 5~30%)	•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차등 감면 지역 I : 70% 지역 II : 50% 지역 III : 30% 지역 IV : 0%
대 기 업	• 이전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 이전시 (수도권→ 지역 I · II · III) • 최초 10년: 70% · 50% · 30% 감면 • 이후 5년: 35% · 25% · 15% 감면 • 창업시 • 최초 7년: 70% · 50% · 30% 감면 • 이후 3년: 35% · 25% · 15% 감면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후 진주산업체육관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에 참석,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오지랖 넓은 법제처 문화수도 특별법 ‘태클’

“재정 부담 커 집행 어렵다”

법제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을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 집행이 곤란한 법률안으로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 ‘의원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

고하면서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는 지난 6월말 현재 5천372건으로 16대 국회(1천912건)에 비해 2.8배 급증했고, 본회의 통과건수는 926건으로 정부 제출안 통과건수(405건) 보다 배 이상 많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법제처는 의원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집행이 곤란한 법률안이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작년 8월27일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은 특별회계 설치에 약 2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부처가 반대했으나 통과됐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작품명
문화수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불안하고 초조할때
역시! 82년을 이어온 술표 우양청심원

통합민주 고립 무원

잇단 탈당 행렬로 지역 기반 붕괴

광주 온朴대표 “배신 행위” 비난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도통합민주당의 광주·전남 단체장 및 지방의원 간담회에서 박상천 대표가 잇따른 탈당 소식 때문에인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듯이 여명 가까운 당 소속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전갑길 광주구청장만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같이 통합민주당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것은 박상천 대표가 원칙론에 빠져 대통합의 주도권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제3지대 신당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대통합의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구 중도통합신당과의 합당 이후 몸집이 커지면서 열린우리당의 우선 해체만을 고집하는 등 정국에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내 원외 강경파들이 인의 장막을 형성한 것도 박 대표의 정확한 판단을 허리케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5일 이전에 통합민주당이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홍업 의원, 박광태 시장·박준영 지사 신당 합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무안·신안)과 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이 25일 통합민주당을 탈당, 제3지대 신당에 합류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통합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각각 탈당계를 제출하고 신당 창당 대열에 참여했다.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민주개혁 세력이 대통합으로 가는 길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전남 신안에서 지역구 활동을 벌였고, 유 의원도 탈당에 즈음한 공식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창당준비위 발족식을 가진 제3지대 신당의 의석은 66석으로 늘어났고, 통합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 창준위에 참여한 구 중도통합신당 출신 의원 20명이 공식 합류하면 86석으로 확대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일태 영암군수와 류선열 영암군의회 부의장, 류호진 군의원 등 3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경기자 hnkim@